

『十訓抄』에 나타난 오노마토피아의 연구*

黃圭三**

『十訓抄』에現れているオノマトペの全体用例数は「副詞型オノマトペ」が25例、「動詞型オノマトペ」が14例、合わせて総39例である。その中で異なり語数は「副詞型オノマトペ」が13例(52%)、「動詞型オノマトペ」が8例で54%に至っている。オノマトペの出現が第1編の「人に恵みを施すべき事」と第7編の「ひたすら思慮深くあるべき事」に多く見られるのは他編に比べ、話の数が多く、口語体の形式で教訓を説いたからである。

「副詞型オノマトペ」の場合、オノマトペの語音結合型は総4種類で、その中でも典型的な語音結合型である「ABAB」型は19例(76%)で『沙石集』の61例(80%)とは等しいが、『古今著聞集』の35例(39%)、『今昔物語集』の30例(55%)に比べ、高い割合である。

「動詞型オノマトペ」の場合、「オノマトペ語基+めく」型は「うめく・そめく」のように1音節・2音節のオノマトペ語基に結び付いて動詞化になったものであり、細かく言い分けられない状態の表現部分はオノマトペが補うという点で有用な言葉である。『十訓抄』に使われているオノマトペのほとんどの用例は、「ト」を伴って実質的な意義を持っている用言(動詞)に接続している。また、『十訓抄』には音象徴性を帯びている動詞を用いた表現が多く現れている。「わななく」「ののしりける」「よろぼひ」などの一般動詞が文章の中で意味的には音象徴性を帯びた生動感のある表現に用いられ、オノマトペの役割を充実に遂行している。

キーワード: 語音結合型、用言化現象、語頭音節、副詞型オノマトペ、動詞型オノマトペ
(어음결합형, 용언화 현상, 어두음절, 부사형 오노마토피아, 동사형 오노마토피아)

1. 들어가기

本論文은 日本의 中世 說話集인 『十訓抄』에 수록되어 있는 說話 가운데 擬聲(音)語・擬態語(以下, 오노마토피아라고 稱한다)가 어

* 본 논문은 2012년도 서일대학교 학술연구비에 의해 연구되었음.(本論文は2012年度瑞逸大学校の學術研究費によって研究されたものである。)

** 瑞逸大学校 日本語科 副教授, 日本語学

떠한 用法과 語音結合型으로 사용되어 졌으며 文章 속에서는 어떠한 表現效果를 나타내고 있는가에 대해 考察한 것이다.

中世時代는(院政・鎌倉時代)는 說話時代라고 불릴 만큼 多數의 說話集이 성립되었다. 說話는 口承 또는 記錄에 의해 傳承되어지는데 그것은 民衆에서 생겨나고 民衆이 対象이 되는 性質을 갖고 있다. 또한 世俗談에 있어서도 『十訓抄』와 같이 大衆相對의 啓蒙的態度에서 話者가 그 이야기를 教誡의 資料로 사용하는 「教訓的 性質」을 갖고 있는데 中世의 說話集에는 이런 傾向이 강하게 나타난다. 中世說話는 『宇治拾遺物語』 『十訓抄』 등과 같이 世俗說話를 中心으로 쓰여진 것과 『沙石集』 『雜談集』 등과 같이 仏敎의 布敎와 大衆의 歸依를 目的으로 한 仏敎說話를 中心으로 하는 두 개의 큰 흐름이 있다. 이 中世時代의 仏敎信仰의 융성은 많은 仏敎說話集의 誕生으로 이어졌는데 『今昔物語集』(12c초)에서 『沙石集』(1277~1283)에 이르기 까지 一連의 說話集의 存在는 서로 同話・類話 등 内容面에서도 有機的인 關聯性을 갖고 있다.

【表 1】 中世說話集의 有機的 關聯性

說話集	成立年度	分量	内 容
今昔物語集	12c초	卷31	대중의 불교귀의를 목적으로 한 불교설화 및 세속설화
宇治拾遺物語	1242~1252	卷15	불교설화 및 세속설화는 물론 일반 笑話까지 수록
古今著聞集	1254	卷20	왕조 및 귀족의 日記, 記錄을 모은 자료로 왕조의 우아하고 고상한 설화와 대중의 비속한 이야기도 수록
沙石集	1277~1283	卷10	불교의 도리를 설파하기 위해 「狂言綺語」의 우스꽝스런 소재를 이용하여 세속 이야기를 설법에 비유한 설화를 수록

이들 說話는 나름대로 主題와 줄거리를 갖고 있으며 그 說話가 傳達하고자 하는 目的과 意義가 內在되어 있는데 거기에 재미라는 흥미로운 要素가 더해져서 大衆 사이에서 널리 膾炙되는 特徵을 갖고 있다.

『十訓抄』라는 말도 10가지의 教訓적인 줄거리로 나뉘어져 展開되는 說話라는 뜻으로 옛날과 지금의 이야기를 「현명한 예」와 「어리석은 예」를 들어 좋은 일은 권장하고 나쁜 일은 경계하며 젊은 사람들이 바른 마음을 익힐 수 있도록 10개의 教訓(十訓)을 바탕으로 해서 說話를 分類하고 編輯한 것이다.

『十訓抄』의 序文에는 編輯目的에 대해 다음과 같이 記述하고 있다.¹⁾

- (1) 「よき方をばこれをすすめ、あしき筋をばこれをいましめ
つつ、いまだ此道をまなびしらざらん少年のたぐひをして、
心をつくるたよりとなさしめんがために、こころみに
十段の筋を分かちて、十訓抄と名づく」

(밑 線은 筆者에 의함. 以下, 同一)

10가지의 教訓적인 說話를 바탕으로 젊은 사람들에게 대한 教訓書로 내용을 分類, 編纂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十訓抄』의 序文에는 그 成立時期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記述하고 있다.

- (2) 建長四年の冬、神無月のなかばのころ、おのづから暇の
あき、心閑かなる折節にあたりつつ、草の庵を東山のふ
もとにしめて、蓮の台を西土の雲にのぞむ翁、念仏のひ
まにこれをしるし終はること、しかりとなむいへり(序)

위 序文에 쓰여 있는 대로 建長四年(1252) 10월 중순경에 成立되었다고 확인되는데 編者인 「翁」에 대해서는 氏名, 經歷 등은 一切不明이다. 編者는 『今昔物語集』과 마찬가지로 누구인지 알 수 없으나 日本 및 漢學에 조애가 깊고 仏教과 관계가 깊은 당시의 貴族的 教養을 몸에 지닌 사람임을 알 수 있다.

10가지의 教訓으로 나누어진 『十訓抄』의 各卷別 構成을 살펴보면 다음 【表2】와 같다.

1) 本 研究에서는 宮内庁書陵部藏의 片仮名三卷本 『十訓抄』(函架番号114/277)를 底本으로 사용한 『日本古典文学全集51』(小学館)을 텍스트로 사용하였다.

【表 2】『十訓抄』의 各 卷別 構成 및 内容

編	題目	說話數	項數	内 容
第1編	「人に恵みを施すべき事」	84	220項	자비·관용의 마음을 권장함.
第2編	「驕慢を避けるべき事」	9	239項	교만 떠는 마음을 경계하고 주위 사람에게 배려하는 마음을 권장함
第3編	「人倫を侮らるざる事」	20	247項	가난한 자, 신분 낮은 자를 얕보는 마음을 경계함.
第4編	「人について戒むべき事」	20	252項	타인의 일에 대해 사정도 모르면서 경솔하게 비판함을 경계함.
第5編	「朋友を選ぶべき事」	25	257項	좋은 친구의 중요성과 良妻와 悪妻의 조건에 대해 설명함.
第6編	「忠実・実直を心得る事」	69	266項	주인이 나쁜 일을 경계하는 어려움과 親孝行의 자식의 이야기
第7編	「ひたすら思慮深くあるべき事」	44	273項	思慮의 중요함에 대해 설명
第8編	「諸事を忍耐すべき事」	13	283項	忍耐의 마음을 권장함
第9編	「願望の抑えるべき事」	16	288項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경계함.
第10編	「才芸を願うべき事」	110	297項	詩歌·管絃 등 많은 재능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함.

이와 같이 『十訓抄』에 나타난 教訓은 編者の 깊은 人間觀察에 바탕을 두고 사람들이 서로 理解하고 상냥함과 부드러움으로 젊은 사람들을 이끌어 가는 자비로운 마음과 他人을 중시 여기는 配慮의 마음이 가득 차 있다고 할 수 있다.

『十訓抄』는 書名에 「訓」이라는 글자를 써 넣었듯이 각 이야기마다 그 教訓의 方向性이 명확하고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道理를 다해야 한다는 意識이 鮮明하게 드러나 있다. 그러나 그것이 強制性이 있다고 하면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膾炙되어 伝承되어 오지 못했을 것이다. 『十訓抄』는 「思慮」를 중요시 여기고 있는데 이 「思慮」라는 것은 상대를 配慮하려고 하는 깊은 愛情과 친절함이 기본이 되는 것이다.

단순한 敎訓이라기 보다는 他人을 중요시 여기는 配慮와 친절함을 說明하고 있기에 後世의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다.

또한 『十訓抄』에는 그 時代의 大衆 庶民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하고 있던 語彙들이 실려져 있어 當時의 語彙나 生活 風俗圖를 이해하는데 많은 情報를 提供해 주고 있다. 특히 口語性 강한 오노마토피아는 說話集에 많은 記錄을 남기고 있는데 이들을 研究함으로써 당시의 他 資料에서 찾아 볼 수 없었던 語彙들을 抽出해 내어 中世 오노마토피아의 語彙體系를 再定立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2. 先行研究 및 問題点

지금까지 中世 說話集의 研究를 살펴보면 주로 說話의 成立과 解題, 系譜, 語彙, 文体 등 다양한 研究를 찾아 볼 수가 있다. 개별적으로는 『今昔物語集』과 『宇治拾遺物語』에 대한 研究는 說話의 構成과 文体, 解題, 表現 등 폭넓게 研究가 이루어졌으며 『古今著聞集』에 대한 研究는 解題와 系譜, 概論 등의 研究가 主從을 이루고 있다. 또한 『沙石集』에 대한 研究는 주로 說話文學研究{白石大二(1959)}나 無住의 思想과 仏敎·仏語와의 關係를 研究한 文体研究나 仏敎側面에서 研究되어진 것들이 대부분이다.

『十訓抄』를 直接的이고 全面的으로 研究한 文献은 그다지 많지는 않으나 『日本 古典 文學全集(51)』의 淺見和彦(1997)가 校注·訳한 해설 부분에는 後嵯峨院時代와 『十訓抄』가 저술된 建長四年의 摂政家와 幕府의 상호관계에 대한 時代的 背景을 說明하고 『十訓抄』의 編者에 대해서는 後藤基綱(1181~1256)가 그 장본인일 것이라고 推測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基綱의 子女에는 宗尊親王時代 鎌倉歌壇에 활약한 後藤基政가 있고 딸 둘은 宗尊親王家에 女官으로서 시집갔는데 그해(1252) 10월, 親王家로 시집 간 딸을 위해 쓴 것이 바로 『十訓抄』가 아닌가 하고 私見을 披瀝하고 있다. 또한 『十訓抄』의 伝本에 대해서도 記述하고 있는데 이는 永積安明가 岩波文庫의 『十訓抄』(昭和17년 9월)에서 分類한 方式이 基本的으로 는 現代에도 踏襲되고 있다고 說明하고 있다.

永積安明(1975)는 伝本을 基本的으로 「第1類 三卷有欠本」「第2類 片仮名三卷本」「第3類 補欠諸本」「第4類 流布板本」과 같이 4分類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十訓抄』가 世人의 관심을 받게 된(享受) 歴史的 背景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는데 『十訓抄』에 대한 관심은 近世의 江戸時代를 통해서 대량의 整版本이 지속적으로 流布되기 시작하였으며 近代에 들어와서는 더욱더 관심이 높아져 明治一六年에는 矢野玄道에 의해 『十訓抄私記』 등이 출판되어 研究의 토대를 만들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는 対照적으로 大正時代에는 『十訓抄詳解』와 같은 본격적인 研究는 보이지 않고 작품의 文学으로써 本質을 추구하고자 하는 意図는 퇴색해 보인다고 説明하고 있다. 『十訓抄』가 그 書名에서 나타내고 있듯이 敎訓的인 説話集이고 더구나 「少年のたぐひ」를 啓蒙하고자 하는 意識을 갖고 編輯된 것이기 때문에 『十訓抄』가 全 近世期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생각보다 넓게 流布된 것도 기본적으로는 近世封建社会에 지배적인 敎学思想에 걸맞는 著述으로써 또 그 補給의 道具으로써 평가된 結果에 起因한다고 記述하고 있다.

竹村信治(1987)는 「読み替え」의 様相과 実態를 개관하면서 『十訓抄』는 그 冗舌한 문제 때문에 오히려 과묵한 문제를 꾸미는 説話集의 内容을 示唆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読み替え」를 内容으로 하는 連想의 운영이 話題展開의 方法에 머무르지 않고 자기운동에 基礎하는 作品表現의 一環으로써 作用하고 있으며 所収説話의 読解의 多元化和 깊은 관계가 있는 作品表現世界の 形成에 참여하고 있다고 説明하고 있다.

福島尚(1987)는 『十訓抄』를 읽기 위해 「『十訓抄』の本文について」라는 研究를 (上)(下)로 발표하였는데 (上)에서는 『十訓抄』의 연구가 근현대에 있어서 그 指名度가 낮아 研究도 저조하지만 『十訓抄』의 당면의 과제는 우선 본문을 교정하고 그것을 성실하게 독해해 가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크게 「平名本諸本の分類の見通し」「片仮名本と平仮名本との先後関係」「片仮名本の価値と平仮名本の価値」로 나누고 平名本諸本을 그 分卷, 分篇의 形態, 本文欠脱의 多寡, 本文 그 자체의 質이라는 관점에서 觀察한 것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또한 氏の 「片仮名本と平仮名本との先後関係」(下)(1987)에서

는 크게 2가지 問題点を 제시하고 그에 답하고 있다.

【表 3】「片仮名本と平仮名本との先後関係」의 問題点

区分	問題点	說 明
第1	片仮名本の本文と平仮名本の本文とではそのいずれがより原初的な形態をとどめているか。	片仮名本の本文のほうが平仮名本の本文にくらべてより多くの原初的な形態をとどめているようである。
第2	より原初的な形態に近い本文で『十訓抄』を読解する場合には、もう平仮名本で『十訓抄』を読む必要はないのか。	①平仮名本の本文には片仮名本にある批評的・説明的な言辞がなく、平仮名本の表現は割合すっきりした物となっていること。 ②平仮名本の表現には、教訓とは必ずしもかわらないレベルで説話それ自体に備っている内容をより興味深く語ろうとする志向が感じられること。

위와 같이 問答하면서 平仮名本 独自の 表現形式의 傾向을 지적할 수 있는데 平仮名本은 片仮名本으로 『十訓抄』를 읽는 것과 並行的으로 읽을 価値가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와 같이 先行研究의 대부분은 『十訓抄』가 누구에 의해 쓰여진 書인가를 論理的으로 추측하거나 쓰여진 그 당시의 時代的 背景과 伝本 등에 대해 說明하고 있으며 片仮名本과 平仮名本과의 内容의 相關關係에 대해 기술한 研究가 主從을 이루고 있다. 本 研究에서 考察하고자 하는 教訓的 說話集에 사용되어진 語彙, 그 중에서도 狀況描写 등에서 現場感을 높이고 内容을 直感的이고 생생하게 傳達할 수 있는 오노마토피아에 대한 研究는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本 研究에서는 『十訓抄』에 나타난 오노마토피아가 어떤 用法과 語音結合型을 가지고 있으며 文章 表現에 있어서 어떠한 役割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좀 더 具體的이고 細分化해서 考察해 보고자 한다.

3. 『十訓抄』에 나타난 오노마토피아

中世 說話集 가운데 『今昔物語集』 『宇治拾遺物語』와 『沙石集』의 내용은 크게 우스운 이야기를 담은 「滑稽談」과 신앙심도 없는 「説教師」의 이야기, 무지하고 바보스러운 「無知한 僧」의 이야기 등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大衆들에게 仏教를 説破하고 教化시키기 위해서는 그들이 日常生活에서 사용하고 있는 言語를 이용함으로써 그 傳達力은 倍加될 수가 있다. 이런 거칠고 세련되지 못한 卑俗한 이야기를 생생하게 이끌어 갈 수 있는 것은 大衆의 口語世界에서 아무 거리낌 없이 사용되고 있는 오노마토피아이다.

『十訓抄』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직 미숙한 젊은이들을 깨우치기 위해 10가지 項目을 제시하여 教訓을 주고자 編輯된 說話集이다. 그러나 막상 作品의 內容을 읽어보면 題目이나 目次에서 느끼는 印象이나 序文의 記述內容과는 달리 詩歌나 管絃, 芸能關係 說話가 다수 실려 있어 教訓說話集이라기 보다는 詩歌說話集이라는 印象마저 든다. 이런 연유로 오노마토피아의 出現頻度数도 다른 說話集에 비해 낮은 편이며 「副詞型오노마토피아」보다 「動詞型오노마토피아」가 相對的으로 많이 사용되어졌음을 알 수 있다.²⁾

【表 4】各 卷別 오노마토피아 用例数

区分	第1編	第2編	第3編	第4編	第5編	第6編	第7編	第8編	第9編	第10編	計
副詞型	7	0	2	2	0	3	5	0	1	5	25
動詞型	3	0	1	2	0	1	5	0	0	2	14
計	10	0	3	4	0	4	10	0	1	7	39

위 【表4】에서 알 수 있듯이 『十訓抄』에 사용된 오노마토피아 중, 「副詞型오노마토피아」가 25例, 「動詞型오노마토피아」가 14例

2) 本 研究에서는 오노마토피아를 「副詞型오노마토피아」와 「動詞型오노마토피아」로 分類하여 考察하고자한다. 「副詞型오노마토피아」는 「かたかた・びかびか・むくむく」 등과 같이 典型的인 形態를 갖고 있는 오노마토피아를 말하며 「動詞型오노마토피아」는 「うめく・きらめく」 등과 같이 「오노마토피아 語基+めく」가 結合한 動詞類를 말한다.

로 全体 用例수가 39例이다. 그 가운데 중복되지 않는 副詞型의 用例수는 19例로 73%에 달하며 動詞型은 8例로 57%를 点하고 있다. 이는 적은 數의 오노마토피아가 사용되었지만 그만큼 다양한 語彙가 사용되어졌다는 것을 意味하며 『十訓抄』에 사용된 오노마토피아의 特徴을 나타내고 있다. 各 編 全体로 보면 「남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을 강조한 第1編과 「사려 깊게 처신할 것」을 說明한 第7編에 많은 양의 오노마토피아가 사용되어졌는데 비교적 說話數가 많이 실려 있거나 口語體 形式으로 教訓을 담은 곳에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第2編, 第5編, 第8編」에는 오노마토피아의 用例가 하나도 보이지 않고 있는데 「第2編, 第8編」의 경우는 分量도 매우 적고 「第5編」의 경우는 주로 詩歌를 읊는 形式으로 되어 있어 오노마토피어가 使用되어지기에는 어려운 環境이라고 할 수 있다.

3.1 各 編別 사용된 오노마토피아의 語音結合型

『十訓抄』에 사용된 오노마토피아의 다양성을 살펴보기 위해 우선 語音結合型을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3.1.1 副詞型 오노마토피아

『十訓抄』에 나타난 副詞型 오노마토피아의 語音結合型은 【表5】에서 보듯이 다른 說話集과 比較해서 單純하다고 말할 수 있다.

【表 5】 各 編別「副詞型오노마토피아」의 語音結合型 分類

区 分	卷1	卷2	卷3	卷4	卷5	卷6	卷7	卷8	卷9	卷10	計
A	1						1				2
AB			1				1		1		3
AB口				1							1
ABAB	6		1	1		3	3			5	19
計	7		2	2		3	5		1	5	25

『十訓抄』에 나타난 오노마토피아의 語音結合型은 總 4種類로 中古時代의 「物語」種類와 中古~中世時代의 說話集인 『今昔物語集』 『宇治拾遺物語』 『沙石集』과 비교해 보아도 단순한 종류의 形態를 보여주고 있다. 다른 說話集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AっB」 「ABん」 「ABり」型 등 일반적인 오노마토피아의 形態는 찾아 볼 수가 없다. 역시 『十訓抄』에서도 傳統的으로 이어져 온 典型的인 語音結合型인 「ABAB」型이 圧倒적으로 76%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AB」型(0.12%)이 사용되었으나 그 使用頻度数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난다.

中世時代의 說話集 및 物語資料에 나타난 中古~中世時代의 「ABAB」型에 대해 數値를 比較하여 再定立해 보면 【表6】과 같다.

【表6】「ABAB」型에 대한 數値比較³⁾

区分	[A]				[B]			
	源氏物語	枕草子	蜻蛉日記	落窪物語	今昔物語	沙石集	古今著聞集	十訓抄
用例数	33	24	15	19	55	76	90	25
ABAB型	27 (82%)	15 (63%)	10 (67%)	10 (53%)	30 (55%)	61 (80%)	35 (39%)	19 (76%)
語音結合型数	4	5	5	5	5	7	8	4

위 【表6】에서 알 수 있듯이 「ABAB」型에 대한 頻度수는 『源氏物語』와 『沙石集』에서는 80%를 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今昔物語集』과 『落窪物語』는 50% 수준임을 감안할 때 『十訓抄』에 사용된 「ABAB」型도 결코 낮은 使用頻度数이라고는 할 수 없다. 더군다나 『十訓抄』에 나타난 語音結合型이 단순한 것으로 보아 「ABAB」型の 依存度は 더욱더 크다고 할 수 있다. 主從인 「ABAB」型の 빈도수가 낮다는 것은 그만큼 다른 型の 출연빈도수가 높다는 것을

3) [A]의 中古時代의 物語와 日記作品의 語音結合型은 山口仲美(1972)의 研究를 토대로 作成하였으며 [B]의 說話集의 경우는 黃(2012.3월, 12월)의 研究를 基礎로 再定立하였다.

意味하는 것이기 때문에 【表6】을 통해 各 資料의 語音結合型에서 「ABAB」型の 依存도와 다른 型の 使用頻度수를 一目瞭然하게 比較해 볼 수가 있다. 또한 「副詞型오노마토피아」의 경우, 『十訓抄』에는 「サ」行音が 많이 사용되어졌는데 『沙石集』등 다른 說話集에서는 「ハ」行音과 「カ」行音이 많이 사용되었다. 이것은 說話集의 音象徵表現은 破裂音・摩擦音を 이용한 清音・濁音의 対立이 重要な 役割을 담당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음은 『十訓抄』에서 유일하게 사용된 「AB口」型에 대해 살펴보면 例文(3)과 같다.

- (3) 「この御寺の辺りにて、そぞろに人をからむること、昔よりこれなり。(四の三)

「AB口」型の 「そぞろ」는 「むやみに・理由なく」라는 意味로 『古今著聞集』과 『沙石集』에서도 나타나지 않은 型으로 中古時代に 나타나 中世後半期부터 자주 사용하기 시작한 語音結合型이다. 語音結合할 때 붙는 「口」型은 接尾語와 같은 役割을 하고 있어 中古以後부터 現代까지도 다양한 語音結合型을 創出해내고 있는 語彙群의 하나이다.⁴⁾ 『十訓抄』에 나타난 語音結合型の 用例를 열거해보면 다음과 같다.

- (4) 情けなきかたにや思はせ給ふらむとて、きと立ちながら
と思ひて、(一の四十三)
(5) いふべきことなくて、ふとはいりにけり(七の十八)
(6) 胸ふさがりておぼしめしけるにその日、ふつと見えざり
ければ、(九の一)
(7) 伊成が右にて、ひしと取りてけり。(三の十)
(8) 帥の前にひざまづきて、涙をほろほろこぼして、(三の十)
(9) いたくつつみたる気色にあらで、畳をそよそよと踏みて
人来なり。(一の四三)

4) 『古今著聞集』에는 「口」型 이외에도 「ABり」型이 7例, 「Aっ」型和 「ABん」型이 각각 1例가 나타난다.

위 例文 中, (6)번의 「ふつと」는 「ふっと」라고도 할 수 있는 例文이며 (9)번의 「そよそよ」는 「暈」를 가볍게 밟고 지나가는 소리를 표현한 것으로 「さっさっさ」と의 의미를 지닌 오노마토피아이다. 이 「そよそよ」는 그 表現樣式도 다양하게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바람이 부드럽고 조용하게 솔솔 부는 모습(風が静かに心地よく続けて吹く様子)」과 「나뭇잎 스치는 모양(葉擦れの様)」을 나타내는 「ソヨソヨ」라는 用例를 通時的으로 살펴보면 그 用法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⁵⁾ 이 語도 역시 歴史性を 가지고 있으며 『万葉集』에 나타난 「そよ」에는 다음과 같은 用例가 보인다.

(10) ……^{はたすきもとほもそよに}旗芒本葉裳具世丹^{ふきくるよひに}秋風乃吹来夕丹
(『万葉集』・二〇八九)

(11) ^{さよふけて}左夜深而 ^{いもを おもひで}妹乎念出 ^{しまたへの}布妙之 ^{まくらも}枕毛^{そよに}衣世二^{おきつるかも}嘆鶴鴨
(『万葉集』・二八八五)

(10)은 얇은 나뭇잎 소리(薄の葉音), (11)은 베개가 내는 소리(枕が立てる音)이다. 이를 時代別로 用例를 조사해 보면 다음과 같다.

中古: (12)人々おびえ騒ぎて、そよそよと身じろきさまよふけ
はひども、衣の音なひ耳かしがましき心地す。

『源氏物語』・若菜上

(13)薮ノ中ニ者ノソヨリ へト鳴テ

『今昔物語集』・卷二六

中世: (14)谷の底のかたより、物のそよへと来る心ちのすれば、
『宇治拾遺物語』

(15)Soyosoyoto ソヨソヨト 副詞 Cajega soyosoyto
fuku.(風がそよそよとふく)風が草木を揺り動かし
て、音を立てながら軟らかに吹く 『日葡辞書』

近世: (16)つかへは上る山おろし、吹くや追風のそよそよと

5) 御廉をもたげてそよろとさし入るる、くれ竹なりけり(三卷・本枕・一三二段)와 같이 異形態의 用例도 찾아볼 수가 있다.

風のいろはに帆を上げて

『近松門左衛門集1』・「薩摩」

(12)번의 「そよそよ」의 경우는 옷이 스치는(衣ずれの音) 소리를 나타내며 (13)번의 경우는 「り」의 反復形이다. (14)번의 「そよそよ」는 물건이 서로 스치는 작은 소리를 나타내며 『日葡辞書』에서도 이 語彙에 대한 説明이 자세히 記述되어 있다.

이와 같이 「そよそよ」는 上代부터 現代까지 바람이 조용하고 부드럽게 부는 모양(風が静かに柔らかく吹く様子)을 表現한 擬態語이며 드물지만 『十訓抄』에 사용된 「暘」를 가볍게 밟고 지나가는 소리 와 나뭇잎이나 옷깃이 스치는 소리를 표현한 擬音語으로도 사용되어지고 있다.

3.1.2 動詞型 오노마토피아

日本語에는 오노마토피아에 붙어 派生動詞를 만들어내는 動詞化接尾語인 「-めく」「-つく」가 있는데 이들은 「그런 모습이나 상태를 나타내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⁶⁾

일찍이 鈴木朗는 「-めく型」「-つく型」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表 7】 鈴木朗의 「-めく・つく型」에 대한 記述

-めく型	-つく型
ヲ <u>メク</u> ノコ 万葉集ニ舟渡せコト呼・トアルコナリ	<u>サワ</u> 今ザワツク
ウ <u>メク</u> ノウ ウゴク・ウゴ <u>メク</u> ノウゴ 今ムクムクト	騒グノ <u>サワ</u> 今ザワツク
フタ <u>メク</u> ・又フタフタノ <u>フタ</u> 今バタツク・又バタバタ	フタフタノ <u>フタ</u> 今バタツク

6) 「-めく」型은 中古時代부터 자주 사용되어 왔는데 「きらめく」처럼 주로 플라스(+)적인 意味를 가진 오노마토피아와 結合하는 傾向이 강하며 「-つく」型은 中世末, 近世初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여 現在에도 「ざわつく」「むかつく」처럼 주로 마이네스(-) 意味를 가진 오노마토피아에 붙어 사용되어지는 傾向이 강하다.

鈴木朗가 記述하고 있는 「-めく型」은 「春めく」「時めく」 등과 같이 「名詞+めく」型과는 語構成의 方式이 다른 별도의 성질을 가진 語彙群으로 분류할 수 있다. 【表7】과 같이 『雅語音声考』에는 다른 近世資料에서는 볼 수 없는 「오노마토피아語基+接尾語」라고 하는 語構成에 대해서 자세하게 記述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松下大三郎(1977)는 「오노마토피아語基+めく・つく」가 결합하여 「그와 같은 소리를 내는 듯한 느낌을 주는 동사(そのような音を発しそうな感じの動詞)」를 「象形動詞」라고 부르고 있다.⁷⁾

『十訓抄』에도 動詞型인 「오노마토피아語基+めく」型이 【表1】에서 보듯이 比較的 많이 나타나는데 어떤 種類の 語彙가 어떤 用法으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해 考察해보기로 한다.

- (17) 上の衣に火付きて、臥しまろび、をめき呌ふべども消えず、(六の二十三)
- (18) 蚊の鳴くやうにて、人のうめく声聞こえけるをあやしみて、(七の二)
- (19) いまや鶯鳴くと、うめきすめきしあひたるに、さきざきは已の時ばかり、(七の三十)

「動詞型오노마토피아」의 가장 一般的인 語構成은 「二音節語基+めく」型이지만 위의 (17~19)번의 用例와 같이 「우메く・を(オ)めく」 등의 「ウ・オ」의 語基는 오노마토피아에서 由來했다는 것을 잊어버릴 정도로 하나의 語로써 結合되기 쉬운 性質을 가진 語彙群이다. 「うめき」는 『今昔物語集』과 『沙石集』에서는 볼 수 없고 本資料와 『宇治拾遺物語』 『古今著聞集』에서 볼 수 있는 用例로 「お(喚)めく」와 같이 擬音語인 것이 特徵이다. (19)번의 用例는 두 動詞가 複合되어 「신음소리를 내듯이 크게 숨을 쉬며 詩歌를 吟味하는 意味(うめくようにして大きな息をつくことから詩歌を苦吟する意)」로 쓰여진 用例이다.

7) 山口仲美(1972)는 「副詞型象徴詞」「動詞型象徴詞」로 分類하여 부르고 있다.

- (20) 諸人目を驚かし、心を騒がして、ざざめきあへるほど
に、伊成すこし寄りて、(三の十)
- (21) そのままにぞ振舞出仕の時は車のうらうへの物見に、は
らめきけるを、(一の七)
- (22) 「この竹台のもとに、そそめきいかむ。それを「あれは
なにするものぞや」と、(七の一七)
- (23) 四五十ばかり具し来て、ひしめきけれども、寺の中は、
(七の二十三)
- (24) 帰命頂礼するほどに、山おびたたしくからめきさわぎ
て、ありつる大会 (一の七)

(20)번의 「ざざめき」는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ざわざわ音を立てる)」라는 뜻이며 (24)번의 「からめく」는 「덜컹덜컹, 데그럭데그럭 무서운 소리를 내다(がらがらとすさまじい音を立てる)」라는 의미로 『今昔物語集』에서 2예를 찾아 볼 수가 있다.⁸⁾

또한 「ざざめき」에 대해서는 『宇治拾遺物語』에 다음과 같은 用例가 보인다.

- (25) これを見て、血つけし男ども手打ちて笑ひなどする程に、
その事ともなくざざめきののしりあひたり。卷二
- (26) 『ぎんだりへやれ。目鼻に入る、堪へがたし』などいふこそ
あやしけれ」など、ささめく者もあり。卷一二

위 用例의 「ざざめく」「ささめく」는 清音과 濁音의 区分으로 시끄러움의 強弱을 표현한 것으로 「ささめく」는 「ささやく」와 같은 派生語를 가지고 있다.

- (27) また、人の寄り合ひて、うちささやきなむどせむ所へは、
(四の二)
- (28) 盛重はゆゆしきあやまちしたりと恐れくるめく。(四の三)
- (29) 屏風の上より投げ出して、まどひくるめきける時、(四の六)

8) 『今昔物語集』에는 「馬ノ走テ行鑑ノ、人モ不乗音ニテカラカヲト聞ヘケレバ」(二五の一)라는 用例가 보인다.

(27)번의 用例와 같이 「接頭語(うち)+二音節語基+めく」형이나 (28~29)번과 같이 「動詞連用形+二音節語基+めく」형이 존재하는데 接頭語(うち)나 動詞連用形이 「動詞型오노마토피아」와 結合함으로써 오노마토피아가 本来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一般語彙와 동등한 語構成의 질서에 따라 쉽게 動詞로 轉換되거나 다른 動詞와 結合하여 複合動詞를 만들어 내는 特徵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오노마토피아+めく」형은 오노마토피아 語基에 本来의 의미를 그대로 살리면서 동사로써 整然한 意味機能을 分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上記의 「-めく型」은 一音節이나 一音節의 反復인 경우, 語基가 모두 擬音語이고 二音節의 반복은 擬音語・擬態語도 存在하는데 擬音語는 瞬間的인 音声描写이기 때문에 「-めく」형은 擬音語와 結合력이 강하다고도 할 수 있다.

『十訓抄』를 중심으로 中世說話集에 나타난 「오노마토피아語基+めく」형에는 어떤 種類가 있으며 使用例가 있는지 알아보면 【表8】과 같다.

【表 8】『十訓抄』를 기준으로 본 「+めく」형의 種類 및 使用例

区分	『十訓抄』	『今昔物語』	『宇治拾遺物語』	『沙石集』	『古今著聞集』
種類	うめく	×	○	×	○
	お(を)めく	×	○	○	○
	からめき	○	×	×	×
	くるめく	○	○	×	○
	ざざめく	×	×	×	×
	そそめく	×	○	○	×
	はらめく	×	×	×	×
	ひしめく	×	○	×	○

『十訓抄』에 나타난 「오노마토피아語基+めく」형의 種類는 총 8種類, 14例로 다른 說話集에 비해 많은 편은 아니지만 【表8】에서 본 바와 같이 『宇治拾遺物語』와 많은 共通語彙를 갖고 있다. 이는

『宇治拾遺物語』와는 同話・類話관계에 있어 서로 공통된 語彙가 많음을 알 수 있으나 『沙石集』에는 「+めく」型の 出現頻度も 낮고 「ぞめく」와 같이 「奔走하거나 들떠 있는 모습」을 描写하고 있는 擬態語가 3例가 사용되어 共通語彙가 적음을 알 수 있다.

「오노마토피아語基+めく」型の 用言化 現象은 基本的인 意味만을 나타내는 動詞와 狀態의 表現部分을 세세하게 나타내는 오노마토피아가 서로 役割을 분담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有用한 語彙群이라고 할 수 있다.

3.2 오노마토피아의 用法 考察

오노마토피아 本来의 用法에 따라 아래의 (30~31)번과 같이 實質的意味를 갖고 있는 動詞(用言)에 接統하는 用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30) 帥の前にひざまづきて、涙をほろほろこぼして、

(三の十)

(31) いたくつつみたる氣色にあらで、暈をそよそよと踏みて人來なり。(一の四三)

(32~34)번의 用例는 뒤에 오는 語가 實質的인 用言이 아니라 形式用言에 속하는 「する」에 연결되어 있는 점이 주목되는데 전체 用例數가 적어서인지 「する」에 연결되는 用例數는 3例 밖에 보이지 않는다.

(32) おこしたる火にくべきせ給ひたりければ、あかあかとして、よく御覽ぜられけり。(一の一三)

(33) 身重く、力浮き浮きとして弱りにければ、(七の一)

(34) 命ばかりは生きたりけれども、ほれほれとして、いふかひなかりければ、(七の二)

(32~33)번의 경우는 「して」가 「御覽」과 「弱り」에 연결되어 있고 (34)는 「して」가 「いふ」의 實質動詞와 연결되어 그 狀態性을

나타내는 役割을 담당하고 있다. 이와 같이 『十訓抄』에도 他 說話集과 동일하게 오노마토피아의 用法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3.3 오노마토피아의 表現 考察

3.3.1 울음소리의 表現

中世 說話集에는 「はらはら」「さめざめ」와 같이 울음 상태를 形容한 例가 많이 나타나는데 적은 수의 오노마토피아가 사용된 『十訓抄』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사용되어졌다. 울음소리 중, 「はらはら」의 경우, 『今昔物語集』에서는 14例가 사용되었으며 『宇治拾遺物語』에서는 7例, 『沙石集』에서는 9例, 『古本著聞集』에는 3例가 사용되었으나 『十訓抄』에서는 1例밖에 사용되지 않았다.

- (35) ことのはかに更けにければ、扇をはらはらとつかひ鳴らして、(一の十六)
- (36) 帥の前にひざまづきて、涙をほろほろこぼして、
(三の十)9)
- (37) 「～しかるべき縁にこそ」と思ひて、さめざめと泣きけるほどに、(十の十七)

울음소리는 上代에는 1例도 보이지 않지만 中古時代에는 「よよ」¹⁰⁾ 「ほろほろ」가 固定化되어 있으며 中世에는 「はらはら」「さめざめ」로 形容하는 表現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비해 近世가 되면 다양한 表現들이 나타나게 되어 그 狀況에 的確하게 表現하는 語가 사용되어지게 되었다.

9) 「ほろほろ」의 경우, 『古本著聞集』의 (卷十, 三八二)와 同一 說話인 관계로 오노마토피아의 語彙選択에도 同一함을 보여주고 있다.

10) 『源氏物語』에서는 「をりをりの事思ひ出でたまふに、よよと泣からたまふ」(須磨)와 같이 울음소리를 「よよ」로 表現하고 있으며 『沙石集』에는 「大きな火針を赤く焼きて、頬を通したれば、光ほろほろとこぼれてけり」(卷三)와 같이 울음소리를 표현하고 있다.

3.3.2 音象徵性を 띤 動詞 表現

오노마토피아 이외에도 音象徵性を 띤 動詞가 사용되어졌는데 그 用例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38) 助元、魂失せながら、わななくわななく、腰なる笛を
抜き出て、(十の二十六)
- (39) 京中に多く走りけるを、人あやめ、ののしりけるほど
に、帝聞しめして、(四の十六)
- (40) 若かりける時、蔵人にて、内裏によろばひありきける
を、さる博士なれば (三の二)

(38)번의 「わななく」는 「반은 정신이 나간 상태에서 벌벌 떠는 손으로(半分気を失いながらがたがたと震える手で)」라는 意味로 「がたがた」로 代用할 수 있는 狀況을 表現하고 있으며 (39)번의 「큰 소리로 소리 지르는(大騒ぎをする)」意味의 「ののしりける」와 (40)번의 「아장아장 걸어가는 모습(よろよろしながら歩くこと)」을 表現한 「よろばひ」 등은 一般動詞이지만 위 例文에서 사용된 意味를 把握해 보면 오노마토피아의 機能을 충실히 担当하고 있는 音象徵性 動詞라고도 할 수 있다. 그 밖에도 「さわぎ」에 接頭語가 붙어서 意味를 강조하는 用例로는 「大騒ぎして笑ったりすること」의 意味를 가진 「ひたさわぎ」와 「あわてふためき」의 意味를 가진 「もてさわぎ」, 「大声で騒ぎ回る」라는 意味를 가진 「あわてさわぎ」라는 用例가 사용되어졌는데 이는 意味적으로는 시끄럽게 떠드는 狀況을 描写하는데 音象徵性を 띤 動詞가 오노마토피아의 역할을 充實히 代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¹⁾

11) 「さわぎ」에 대한 用例로는 ① ものを聞きもはず、ひたさわぎに笑ふことあるまじきことなり。(四の十五) ② 誤りしたるつらつくりして、もてさわぎてみれば、(四の三) ③ 「～その便りにまうで来たりたるばかりなり」とあわてさわぎければ、(四の三)와 같이 「시끄러운 狀況」을 表現한 用例를 찾아볼 수가 있다.

4. 나오기

지금까지 『十訓抄』에 나타난 오노마토피아에 대해 考察해 보았다. 『十訓抄』에 사용되어진 오노마토피아의 全体用例數는 「副詞型 오노마토피아」가 25例, 「動詞型 오노마토피아」가 14例, 합쳐서 總 39例이다. 그 가운데 중복되지 않는 語數는 副詞型이 13例, 動詞型이 8例로 54%에 이르고 있다.

「副詞型 오노마토피아」의 경우, 오노마토피아의 語音結合型은 總 4種類로 그 가운데에서도 典型的인 語音結合型인 「ABAB」型은 19例(76%)로 『沙石集』의 61例(80%)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古今著聞集』의 35例(39%), 『今昔物語集』의 30例(55%)와 비교해 보면 높은 비율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그만큼 다양한 語彙가 사용되어졌다는 것을 意味하며 『十訓抄』에 사용되어진 오노마토피아의 表現效果를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動詞型 오노마토피아」의 경우, 「오노마토피아語基+めく」型은 總 13例가 사용되어졌는데 중복되지 않는 語數는 8例이다.

「動詞型 오노마토피아」로서 가장 일반적인 語構成은 「二音節語基+めく」型이지만 1音節・2音節에 결합한 「-めく」型은 오노마토피아語基에 결합하여 動詞化된 것으로 細分化해서 말할 수 없는 狀態表現部分은 오노마토피아가 그 意味를 補充한다는 점에서 有用한 語彙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오노마토피아의 用法으로는 대부분의 用例는 「ト」를 동반한 實質的인 意義를 가진 用言(動詞)에 접속하고 있으며 다른 說話集과 동일하게 實質的 意味를 갖고 있는 動詞(用言)에 접속하는 用法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形式用言 「する」에 연결되어 사용되어지는 一般的인 用法이 사용되었다. 또한 『十訓抄』에는 「サ」行音が 많이 사용되어졌는데 『沙石集』 등 다른 說話集에서는 「ハ」行音과 「カ」行音이 많이 사용되었다. 이것은 說話集의 音象徵表現은 破裂音・摩擦音を 이용한 清音・濁音의 対立이 重要な 役割을 담당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울음소리 표현에 사용된 오노마토피아는 「はらはら」「さめざめ」「ほ

ろほろ」 등이 사용되었는데 이들 어휘들은 中古부터 中世 説話集에 이르기 까지 固定・固着化되어 사용되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또한 『十訓抄』에서는 오노마토피아 使用率이 낮은 반면 音象徵性を 띤 動詞를 사용한 表現이 많이 있는데 「わななく」「ののしりける」「よろぼひ」 등의 一般動詞가 文章 속에서는 意味적으로 音象徵성을 띤 生動感 있는 表現에 사용되어 오노마토피아의 役割機能을 充實하게 代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参考文献

- 黄圭三(2012a) 「『沙石集』에 사용된 오노마토피아의 연구」『日語語教育』第59輯, 韓国日本語教育学会, pp.107-122.
- (2012b) 「説話集에 나타난 오노마토피아의 表現 연구 - 『今昔物語集』『宇治拾遺物語』를 中心으로 -」『日本學報』第91輯, 韓国日本学会, pp.277-290.
- (2012c) 「『古今著聞集』의 오노마토피아 表現에 관한 考察」『日語語教育』第62輯, 韓国日本語教育学会, pp.181-193.
- 浅見和彦(1999) 『日本古典文学全集51』小学館, pp.499-510.
- 有賀嘉寿子(1982) 「今昔物語集の語彙」『古代の語彙』明治書院, pp.353-372.
- 市村和子(1967) 「宇治拾遺物語の擬音語・擬容語」『国文』第二八号, お茶の水女子大学国語国文学会, pp.15-24.
- 稲垣泰一(1988) 「宇治拾遺物語の表現」『表現学大系』軍記と説話の表現』第6巻, 教育出版センター, pp.123-158.
- 小川輝夫(1988) 「今昔物語集の表現」『表現学大系』軍記と説話の表現』第6巻, 教育出版センター, pp.61-113.
- 音 誠一(1980) 「沙石集における漢語の副詞的用法及び擬態語・擬音語について」『語学文学研究』10, 金沢大学, pp.27-32.
- 木下正俊(1989) 『万葉集』一~四巻, 日本古典文学全集, 小学館, p.407.
- 斉藤由美子(1997) 「日本語のオノマトペ - 沙石集の場合 -」『梅花短期大学研究紀要』45, 梅花女子大学, pp.23-33.
- 酒井秀夫(1977) 「『雅語音声考』について」『文莫』2号, 鈴木朗学会, pp.1-6.
- 桜井光昭(1976) 『今昔物語集の語法の研究』明治書院, pp.317-358.
- 鈴木朗(1816) 『言語四種論・雅語音声考・希雅』勉誠社文庫68, 勉誠社, pp.40-53.
- 竹村信次(1987) 「連想と読み替え - 十訓抄の表現(2) -」『金沢美術工芸大学学報』第31号, 金沢美術工芸大学, pp.1-7.
- 土井忠生外2名(1980) 邦訳『日葡辞書』岩波書店, p.580.
- 永積安明(1975) 「『十訓抄』の世界」『日本の説話4』東京美術, pp.352-382.
- 西尾光一/貴志正造編(1978) 『中世説話集・古今著聞集・発心集・神道集』鑑賞日本古典文学 第23巻, 角川書店, pp.391-402.

- 福島尚(1987)『十訓抄』の本文について(上) - 『十訓抄』をよむために - 『国語国文』第
五六巻 第八号、中央図書出版、pp.35-51
——(1987)『十訓抄』の本文について(上) - 『十訓抄』をよむために - 『国語国文』第
五六巻 第九号、中央図書出版、pp.29-51.
——(1988)「教科書『十訓抄』の性格に関する一考察 - 序文の解釈を緒として - 『国
語国文』第五八巻 第十一号、中央図書出版、pp.18-35.
福田益和(1998)「古今著聞集の表現に関する一考察-今昔物語集・宇治拾遺物語との
比較を通して-」『日本語研究の新視点』風間書房、pp.264-284.
前島年子(1967)「時代を通してみた擬声語・擬態語」『東京女子大学日本文学』日本文
学研究会、pp42-55.
森田雅子(1953)「語音結合の型よりみた擬音語・擬態語 - その歴史的推移について -」
『国語と国文学』30・1号、至文堂、pp.47-60.
山口仲美(1972)「今昔物語集の象徴詞表現論的考察」『王朝』第五冊、中央図書出版、
pp.7-44.
山田英雄(1972)「十訓抄」国史大系書目解題(上巻) 吉川弘文館、pp.239-253.

성 명(한 글) : 황 규 삼

(한 자) : 黃圭三

(영 문) : Hwang, Kyu-Sam

논문영어제목 : The Study of Onomatopoeia in 『jikkunsyo-』

소 속 : 131-702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90길 28 서일대학교 일본어과

E-mail : hwang93@seoil.ac.kr

휴대폰 : 010-8935-9393

연구실 : 02) 490-7489

투 고 일 : 2014년 1월 9일

심사개시일 : 2014년 1월 13일

심사완료일 : 2014년 2월 4일